

반려동물 '전성시대'

높아진 생활수준·1인 가구 증가로 시장 확대 수작업 한정 판매 100만원대 애견하우스까지

그야말로 반려동물 전성시대다. 전용 호텔부터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의상까지 반려동물들을 위한 서비스 상품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일례로 한 유명 백화점에서는 100% 원목으로 만든 강아지용 밥그릇 디자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해 한정 수량으로만 판매하는 반려견 하우스도 팔고 있다. 각각의 가격은 30만원, 100만원 상당이다.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독특한 상품이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1인 가구 증가에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시장 자체가 커졌음을 의미한다.

28일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은 매년 두자리수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0년에는 약 6조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도 관련 서비스 상품들을 새롭게 구축하며 전에 없던 매출 견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갤러리아백화점의 애견전문매장 '벳부티크'는 오픈 이후 연 평균 20%의 매출 신장을 기록 중이다. 특히 15만원 이상인 고가 상품은 지난 1월1일부터 3월23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50%의 매출 신장을 이뤘다.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다. 이마트가 운영하는 애견전문매장 '몰리스 펫샵'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월1일부터 3월23일까지 10만원 이상 고급 애견용품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

비 46.2% 증가했다.

소셜커머스에서도 반려동물 카테고리의 성장세가 가파르다. 2014년 첫 오픈 이후 반려동물 카테고리 매출은 1년 새 27% 상승했다. 또 지난 1월1일부터 3월23일까지의 매출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174% 매출이 올랐다.

오픈마켓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옥션은 최근 3개년 반려동물용품의 판매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4년 18%, 2015년에는 25%, 올해 1월1일부터 3월23일까지는 1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최근 애완동물을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프리미엄 사료 및 애견용품을 구매하는 고객들도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에게 아낌없이 투자하는 고객들로 각종 서비스 용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주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다음 달 7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와인 박람회 Vino in LOTTE'를 개최한다.

롯데백 전주점 '와인 박람회'

내달 7일까지 식품매장서

롯데백화점 전주점(점장 박중구)은 이달 31일부터 4월 7일까지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와인 박람회 Vino in LOTTE'를 개최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와인 열풍에 맞춰 프랑스 보르도의 전지역 그랑크뤼와 더불어 국내 단독으로 바이어 직소상되는 프랑스 이탈리아의 벨류어인을 선보인다.

그랑크뤼는 한정특가로 샤프 디켄 2008년(6병한) 30만원, 샤프 까망삭 2012년(12병한) 4만원, 샤프 페르에르 2012년(12병한) 4만5,000원에 판

매하고, 바이어 직소심 유럽 3대 와인으로 프랑스 샤프 라공발에어 1만5,000원, 이탈리아 트포카이 1만5,000원에 만나 볼 수 있다.

기간 중 대량 구매 시 무료 배송 서비스와 와인 20만원/4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롯데상품권 만 원/2만원 증정, 및 브랜드 별 다양한 사은품 등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전주점 와인 최연속 파트너는 "최저가격으로 대규모 상품과 다양한 관측행사를 준비했다. 그 동안 가격인상 등으로 구입을 망설여온 와인마니아들의 구매 욕구에 적합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익산국토청, 호남지역 건설안전 종합계획 수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허대성)은 사고 없는 호남지역 건설현장을 위해 2016년 호남지역 건설안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안전체험교육,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컨설팅,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안전점검 확대 실시, 캠페인 실시 등 6대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설안전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추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설현장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6월중에 공모 우수작은 연말에 포함하는 등 타 지역 건설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전파할 방침이다.

김철중 건설관리실장은 "본인과 가족의 불행은 물론 국가의 커다란 손실을 초래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31일 해상풍력산업 발전 워크숍

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오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변산 대명리조트에서 전북 조선·해양산업의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전북 ICT경제·해양레저·해상풍력산업 발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사)새만금조선해양레저협회에서 주관하고, 전북테크노파크, 군산대 ICT융합조선해양연구원 등에서 주최한다.

워크숍은 전북의 낙후된 조선 해양산업의 발전전략과 해양레저관광 및 해양에너지 산업에 대한 전망을 모색한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해양레저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새만금해상풍력 단지 개발에 전북 기업들의 참여를 고취시키며, 해양설비분야 사업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광영 기자

전북농어촌공, 용배수로 정비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농업용수 관리용 용배수로 퇴적물 관리에 나선다.

이번 관리는 4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다. 특히 장미가 시작되는 7월 이전에 자라난 수초가 용배수로 물 흐름을 방해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인력과 장비준비로 18억여원을 투입한다.

김학원 본부장은 "지난해 급·배수가 어려운 지역을 올해 우선 준설하고, 4월부터 찾아가는 고객센터를 통해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전했으며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이스타항공은 인천-타이페이(타오위엔), 청주-닝보 정기편을 신규 취항한다.

이스타항공, 대만 정기노선 취항

인천-타이페이·청주-닝보

이스타항공은 28일부터 인천 타이페이(타오위엔), 청주-닝보 정기편을 신규 취항한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12년 5월 김포-타이페이(송산) 취항에 이어 두 번째 대만 정기노선을 취항했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정기노선 김포-송산(화,목,토), 인천-타오위엔(월,수

금,일)을 통해 주7회 대만 노선을 운영하게 됐고 탑승률 증대 및 고객 편의가 한층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만노선 신규 취항으로 김포공항 송산공항의 시내와 가까운 접근성과 인천공항, 타오위엔공항의 다양한 서비스의 장점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인천-타이페이 노선은 28일 첫편 탑승률이 99%를 나타냈다. 4월 예

약률 또한 80% 이상을 이어가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김정식 이스타항공 대표는 "대만 노선은 2012년 김포-송산노선 취항 이후 지속적으로 탑승 고객이 증가해 현재 평균 90% 이상의 높은 탑승률을 보이는 노선이다. 이번 인천-타이페이 노선 또한 높은 탑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청주-닝보 노선 또한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송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최저 5% 수익 보장' BBQ 카페 신규매장만 해당... 시정명령

BBQ 프리미엄 카페를 창업하면 투자금에 대해 연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가 사실과는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제너시스비비큐'가 프리미엄카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최저 수익으로 보장해 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BBQ 프리미엄카페는 치킨과 함께 파스타, 피자, 커피, 맥주, 카페일 등 다양한 메뉴를 판매하는 레스토랑 형태의 매장이다.

제너시스비비큐는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업계 최초로 총 투자비의 연 5% 수익을 보장해 주는 최저수익보장제'를 시행한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광고 내용은 사실과 크게 달랐다.

이 업체는 창업 형태에 대해 새로

점포를 임차해 매장을 내는 '신규매장'과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BBQ 가맹점을 개설하는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사실상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최저수익을 보장했다.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관리금·보증금)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5%의 수익을 보장했다.

공정위는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는 달리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이고,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가 총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제한 조건을 광고에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은폐·축소한 기만적인 광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성주 기자



[마음]

그 언제나처럼
한결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의 곁을 지켜드리는
전북은행이 되겠습니다

